

이제 풀백문법 실전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실력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듣고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겠다, 안 돼요.

일단 풀백 현대문법 공부하고

그다음 풀백 고전문법 공부하고.

내가 특정 단어를 공부했으면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꼭 그 단원에 맞춰서 출제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3단원하고 5단원에 있는 내용이 조합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체를 다 듣고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운편 다 들을 필요 있나요?

사실 다 들을 필요 없잖아.

내가 풀어봤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잘 풀려.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

그러면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문법을 한 번 공부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또 맞았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

지식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하는 과정이 분명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쉽다면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꼭 챙겨듣고

그리고 제가 강의도 듣기도 이전에

내가 문제 풀이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 강의로 넘어가셔야죠.

다시 현대 문법 쪽에 해당하는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좋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거예요.

문법이 몇 학년이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문법을 반드시 봐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문법이 선택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법이라는 거를 만약에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라면

선생님 같으면 문법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문법을 할 거냐,

아니면 화작을 할 거냐의 문제가 걸릴 텐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평등하게 풀 수 있는 거지만

텍스트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보기에

또는 지문에 텍스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단하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잘 알고 있다면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별력도 있고

또 시간을 줄여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학이나 비문학을 푸는 데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친구들의 경우이고.

나는 선택 같은 거 안 하는데?

이거 봐야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도 당연히 문법은 중요하죠.

당연히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1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풀어줄 수 있다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굳이 1번부터 풀 필요 없어.

뭐하러 1번부터 푸니?

선생님, 당연히 1번부터 푸는 거 아니에요?

문학부터 푸나요? 비문학부터 푸나요?

그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법하고 작문인데,

어쨌든 텍스트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내가 눈에 버퍼링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텍스트를 보다보면 안 익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 걸리는 텍스트를 보느니

너희가 자신있는 부분인 문법을 먼저 풀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

일단 문법도 어쨌든 답지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짚막한 텍스트다.

그래서 그 짚막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너의 눈이 좀 예열이 되는 그러한 효과.

그래서 화작을 넘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시험 현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미묘한 부분에서도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수능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을 못하지만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서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사그락 사그락.

그런데 나는 아직 앞장을 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벌써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늦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접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는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11번부터 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하고 아예 다르게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이 사그락 사그락 넘어간다고 해도

내가 늦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심리적 안정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차라리 문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문법부터 공략하는 게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음운편이에요.

음운, 이쪽 파트에서 문법 문제가 출제되냐?

되기는 하는데 사실 수능 쪽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 구성도 보면 알겠지만

주로 1학년, 2학년 학평 정도에 주로 나왔던 문제들이

포진해있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운을 정확하게 공부해줘야 되는 것은

이 음운 다음에 2장, 3장에 음운 변동.

빈출하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운 변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개념 강의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풀이 강의잖아요.

그래서 적는 방식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지식 음운.

이거로도 그냥 문제 하나를 풀 수 있었어.

음운이라는 것은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거 들어갑니까?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중요한 거는 말 또는 발을 비교해봤을 때

이 초성에 있는 ㅁ하고 ㅂ이 음운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만 바꾸었을 때 뭐가 구별되었다?

의미가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발과 같이

자음으로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음이나 모음 이런 거를 분절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것도 있었죠?

foot, 사람의 발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거 어떤 표시였습니까? 장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그런 차양 같은 경우를
또 발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짧은 음과 긴 음으로 구별되는 거.

이것도 의미를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

단어의 뜻을 구별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짧은 소리냐, 아니면 긴 소리냐.

이런 거로 구별할 수 있는 음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분절 음운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운의 기본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누는 거고.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분절 음운인데,

이 분절 음운은 바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자음표였어요.

자음표 같은 경우 어떻게 잡았습니까?

바 다 가 자 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 여러분 강의 안 들은 거야.

바 다 가 자 서 해 마 늘 요 리

이렇게 잡았죠.

지금 표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원래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정보를 전부 다 적어준 다음에

다 채워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이고

지금처럼 완벽하게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대충의 선을 그려놓고

어느 위치에 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쓸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입술 소리.

ㅂ하고 ㅁ, 입술 소리.

무슨 소리에요?

치조음, 그래서 혀끝하고 윗잇몸이 맞닿게 되는 치조음이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자음이 치조음 라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ㅈ, 무슨 계열입니까?

연구개음이에요, 경구개음이에요?

딱딱한 경구개음이죠.

그래서 혀 앞부분하고 입천장 닿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ㄱ하고 ㅇ 라인, 이런 거는요?

여린입 천장소리라고 해서 연구개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여기 ㅎ은 목청 소리 또는 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로축으로도 볼까요?

이쪽 무슨 음이야?

우선 크게 대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

안울림 소리.

여기는 무슨 소리?

울림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안울림 소리가 바로 무성음.

그리고 울림 소리가 유성음입니다.

그러면 안울림 소리는 또 3개로 나눌 수가 있군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파열음,

그다음에 두 번째 거 파찰음,

세 번째 거 마찰음이 되는 거죠.

그다음 ㅁ하고 ㄴ하고 ㅇ의 경우에는 비음,

그다음에 르은 유음, 정리됐죠?

그리고 이렇게 안울림 소리 내에서는

사실 지금 기본적인 글자만 적어봤지만

더 확장할 수가 있었죠.

애네들 예사 소리잖아.

그래서 예사 소리에겐 거센 소리와 된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ㅈ의 거센 표, 된소리 ㅉ.

ㄷ, ㅌ, ㅍ

ㄱ, ㅋ, ㆁ

ㅈ, ㅊ, ㅉ

그리고 이 라인에는 마찰음 라인에서는 뭐는 없어요?

거센 소리는 없죠.

그래서 ㅈ의 된소리인 ㅉ까지

이쪽 라인에 사실 같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자음 체계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하게 되는

음운 변동 문제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음화나 유음화.

또는 구개음화라는 것이 어떤 음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것이 조음이 되는, 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의 변화인지

아니면 위치의 변화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 체계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있어야 돼요.

그다음 모음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키워는곧 계획먹고 배탈

이렇게 정리했었죠?

이거는 또 뭔가? 강의 안 들으면 몰라요.

강의 들어봤어야 돼.

그래서 역시나 쪼개주면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 맨 위에 있는 거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

오해하면 안 돼요.

혀의 높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혀의 최고점.

그러니까 만약에 혀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애가 최고점이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애가 최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이나,
그러면 이거 5개는 전설 모음.
그다음 뒤쪽이나, 후설 모음.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애네들은 평순,
애네들은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네는 입의 크기, 혀의 높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런 식으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자음표나 모음표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어야 되고
암기가 되어있어야 돼.
문제 접근합니다.
1번 가보도록 하죠.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1학년 때라면 1번 문제를 볼 때
실제 이 표를 처음 보고 보기도 처음 읽어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 맞춰 하면서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런데 이거 모음표구나, 하고 보기를 곧바로 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어요?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이거는 뭐 이야기하는 거야? 뭘 설명하는 거야?
전설 모음.
다시요.
입천장을 중간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중간점으로 이야기했을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서 노니는 거.

우리가 이를 발음할 때는 거의 혀가 여기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점의 위치가 바로 전설이 되는 거죠.

ㅣ, ㄱ 할 때만 하더라도 혀가 여기서 노니는데

ㅡ 하면서 갑자기 혀가 쪽 빠져요.

ㅌ는 살짝 빠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혀의 위치를 따져보게 되면

전설과 후설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설명은 바로 전설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입술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모음이라는 거는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로 발음한다고 했으니까.

혀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바로 높이를 이야기하는

고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설 모음이었고 그다음에 평순 모음이었고

그다음에 고모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2번 문제 갑니다.

다음에 단모음을 체계표를 참고할 때

보기 ㄱ에 들어갈 말이라고 했습니다.

보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 민기가 대화를 합니다.

수정이가 내가 잘 했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잘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수정이랑 민기랑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수정이가 내가 잘 했어야 하는데, 민기를 보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민기가 오해할 법도 하죠.

뭐라고? 내가 잘 했어야 된다고?

네가 잘못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기가 오해를 한 거죠.

뭐? 내가 잘 했어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랬더니 아니 니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서 실제로 니라는 말을 써요.

니가, 왜 니가 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 지금 대화에도 나오지만

니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 아니야? 라고 민기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수정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니라는 단어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득이하게 니가, 라는 말을 쓰냐는 거죠.

이거는 원래 원칙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네가 라고 할 때 우리 현대인들이

이 ㄱ 발음하고 ㄷ 발음을 명쾌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발음할 때 힘주어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선생님도 그러지 않고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것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개와 게를 발음하면 선생님이 알아들어요.

너 게 먹을래, 개 먹을래? 하면

어머니가 이거 먹자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만 하더라도 애를 발음한 건지 얘를 발음한 건지

상대가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것을 많이 헷갈려하는데, 발음할 때.

듣는 이는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거로 쓸 뿐이지 실제로 이거는 표준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뭐냐면 애와 애의 차이를 명쾌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표를 봤을 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혀의 위치를 따졌을 때는 전설 쪽이고

또 같은 평순 모음이기 때문에 앞뒤나

아니면 입술의 모양으로는 이 둘을 구별 못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를 가지고?

바로 중모음과 저모음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즉 이거를 발음할 때

내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을 더 크게.

당연히 입을 크게 발음하게 된다면

혀는 아랫턱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이런 거는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좋죠.

그다음 3번 문제 가보죠.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문제도 그냥 쉽게 넘어갈까요?

보면 개하고 게, 이거랑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서

할 때마다 머뭇거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애를 발음할 때에는 애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린다거나

아니면 혀를 낮게 한다거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정답이 바로 2번이었던 거죠.

이게 그런데 3학년 문제야, 옛날에.

이런 것도 되게 쉽다, 그렇죠?

4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적절한 것은?

그림에 만화가 나와있네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딸 아이가 엄마에게 빛이 많지요, 그랬더니

엄마가 빛? 몇 개 있지. 필요해? 줄까?

하면서 별의별 빛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아니 엄마에게 갚아야 될 마음의 빛이 많다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 빛이 많다고?

효녀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빛이 많다는 이야기구나, 아이고 우리딸 착해라 다 컸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에 엄마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뭐의 문제다?

애가 넘어가는 거를 무슨 원칙이라고 해요?

선생님, 이거 왜 음운 변동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음운 변동 아니니까.

음운 변동은 우리 다음 시간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음은 아무 음운 변동이 아니예요.

그냥 우리 초성에 있는 ㅇ은 음가가 없다.

소릿값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받침은 넘어가는 거야.

받침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발음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아이의 문제는 뭐다?

받침에 있는 자음이 넘어가는 것을 잘못 발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건데.

이러한 실수를 사실 우리는 많이 하죠.

이런 거를 발음할 때 나 꼬슬 샐어.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든지.

당연히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당연히 틀리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예요.

연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꼭 외워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음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체 변화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연음 조건은 절대적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앞일 때에 받침이 넘어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조사잖아요.

형식형태소죠, 실질 아니죠.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비어있는 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실질형태소라면

발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체 변화, 음절의 끝소리 후에 넘어갑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잘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음이라는 것이 모음 조사기 때문에

비어있는 이 ○ 자리를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발음은 뭐가 맞다?

꼬출이 맞는 거죠.

에이 선생님, 이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원칙을 알면서도 너무 발음이 이상해.

이런 것이 특히 겹받침.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이도 역시 뭐에 해당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발음을 뭐라고 하나면

다기,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해요.

선생님,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뭐의 문제냐면 큰 왜 빼주냐는 거죠.

큰 왜 빼주냐는 거죠.

접받침일 때는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틀려요.

다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두 개 다 넘길 수 없잖아요.

뒤에 것만 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어야 돼?

달기, 이게 표준 발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

음운, 음운 변동 부분은 뒤에 표준 발음법과 관련되어있는

어문 규정이랑도 사실 연결되어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를 포진할 때

이렇게 표준 발음법 조항과 관련되어있는 보기가 많이 있으면

표준 발음법 쪽으로 넘겼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음운 변동 쪽으로 문제를 잡은 거거든요.

아마 또 반복적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는 연습합니다.

단, 뒤에 것만 넘겨야죠.

앞에 거를 막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어색하죠.

선생님, 저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은 달기, 라고 발음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네 발음이 틀렸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발음을 해야 돼요.

그다음 5번 문제 가보자.

다음은 자음 습득에 관한 탐구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쪽 읽어보면 이해되죠?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여기로 올까요?

사실 애들이 이런 소리는 배우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배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모음이기 때문에 웅알이하면서

이러면서 나오는 소리이지

애들이 그 발음을 배워야 돼, 이러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언제 이 ㅁ 쪽 발음과

언제 이 ㅃ 쪽의 발음을 하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보기를 보면 연령에 따른 자음 발달 단계를 살펴 보니까

일단 입술에서 나는 소리가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비음이자 울림 소리.

그러면 다시 이 표를 보면,

일단 비음 쪽 라인이니깐 이거죠.

그리고 애네들은 전부 다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ㅁ, ㄴ, ㅇ인데

이중에서 입술로 내는 비음이자 울림 소리는 바로 뭐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입술 소리.

양순음에 해당하는 ㅁ 쪽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애들이 그냥 웅알이하다가

입만 떼면 음마, 음마 하면 나오는 소리죠.

그래서 전세계적으로도 엄마를 뜻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마더, 마미 m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후 3세 때 파열음이자 안울림 소리인, 이라고 했죠.

파열음 라인이죠.

그리고 안올림 소리 이쪽이죠.

이 ㅂ.

그러나 역시 입술 소리죠.

그래서 이쪽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 빠, 파 다 이 라인이죠.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소리하면 ㅂ, ㅍ, ㅃ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쪽 발음들을

그다음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동들은 부모의 호칭 중에

음성학적으로는 아빠보다는 엄마를 먼저 습득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엄마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1번, ㅁ은 ㄱ보다 강하게 파열되면

보기에 설명 나와있어.

그런데 보기를 읽고 이 문제를 풀겠냐?

아니야,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

선생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즉 보기를 날려도 1번 답지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보기를 날려먹어도,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보기를 안 줘도

1번 틀렸네, 어떻게 ㅁ이 이거 올림 소리인데

ㅃ 파열음보다 강하게 파열될 수 있어?

울리면서 파열해?

이것도 소리지른다고 파열이 아니잖아요.

파열음의 정의가 뭘니까?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며 나오는 소리잖아요.

애네는 그냥 울리면서 나오는 유성음이기 때문에

터뜨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ㅂ, 바.

다, 가.

그래서 조음 기관이 위에 있는 입천장이든 혀끝이 윗잇몸이든
입술끼리든 해서 딱 공기를 막아놨다가
뽕뽕 터뜨리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파열음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리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설명도 다 맞죠.

ㅁ은 ㅂ과 달리 목청을 울리면서, 울림 소리니까.

다음 3번에 ㅁ은 ㅂ과 달리 공기를 어디로?

코로 내보내면서 소리를 낸다.

비음이니까.

ㅁ과 ㅂ은 전부 다 양순음,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구나.

다음 5번.

ㅁ과 ㅂ은 공기가 방해를 받는 소리구나.

네.

그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죠.

우리 자음을 다른 말로 장애음이라고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설명이냐.

울림 소리가든 안 울림 소리가든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장애를 주면서 내는 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음의 경우에는 아에이오우 하면서

조음 기관을 이용해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는 닫았다 열었다,

아니면 공기끼리 일부로 좁혀서 쓸리게 나오게 했다가

아니면 코를 통하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분명 장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음들은 전부 다 장애를 주는 소리라고 해서

5번 설명이 그 이야기예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주는 소리.

그러면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울림 소리 아니에요?

울림 소리를 공기의 방해 없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뽀를? 모음을.

모음을 공기에 방해를 주며 내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6번 문제 가요.

다음은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 표예요.

사실 이 방식,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음운 변동 문제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선생님이 애를 이거로 발음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음운 변동에 의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동화인데 자음 동화 그리고 역행 동화,

그리고 이 동화 내에서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중에 비음화.

즉 교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자음 동화의 경우에는

인접 음운끼리의 관계죠.

그래서 결국 뒤에 있는 ㅁ에 의해서

ㅁ이 무슨 음?

비음이죠.

ㅁ이 비음이기 때문에 비음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ㄱ이 영향을 받아

그래서 ㄱ이 뭐로 바뀌어? ㅇ으로 바뀌어요.

비음이죠.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ㄱ이 ㅇ으로 바뀌었다고요.

ㄱ이 ㅇ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뒤에 나오는 ㅁ에 의해서

즉 뒤에 나오는 비음인 ㅁ에 의해서

앞에 있는 이 기 뒤를 바꿨다?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야.

왜? 여기에 있는 거 연구개음이니까.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 연구개음인데 세로축은 동일하잖아요.

뒤를 바꿨다? 조음의 방법이 바뀌었다.

과열음에서 비음으로 조음의 방법이 바뀌었다.

지금 표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가로축이 내려간 거지 세로축은 움직임이 없어요.

여린입천장 소리란 말이죠.

정답 몇 번? 4번이죠.

ㅁ은 안울림 소리인 기 울림 소리인 ㅇ으로 발음되도록 만든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ㅁ은

즉 뒤에 나와 있는 비음인 ㅁ은

과열음이었던 기을 비음인 ㅇ으로.

아무리 안울림이라고 해도 갑자기 ㄹ로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세로축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음화 또 유음화예요.

그래서 비음화나 유음화는 뭐만 바뀐다?

조음 방법만 바뀌는 거고.

구개음화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다 변하는 거고.

이것도 외워주면 땡큐.

왜냐하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어, 이런 것도.

7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7번도 표 일부를 줬죠.

그래놓고 이야기합니다.

입는이나 뜯는이나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식물, 이런 거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식물 이야기해볼까요?

똑같은 거잖아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ㄱ, ㄴ 만나서 이거 ㅇ 바뀌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로 두 자음이 만났을 때 어디가 바뀐 거야?

두 자음 만났을 때 앞 자음과 뒤 자음 중에

앞 자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앞 자음이 뭐가 바뀌었다?

조음 위치가, 조음 방법이?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똑같은 계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법 문제를 가만히 보면

지금 옆에 달아놓은 게 1학년, 3학년 이렇게 나와있지만

선생님이 배열을 1학년을 먼저 주고 3학년을 뒤에 주고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어떻게 봤을 때는 유사하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2학년 문제가 더 어렵거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8번 문제.

이거 알면 끝나는 거죠.

이 정의를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굳이 ㄱ하고 ㄴ을 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여기서 ㄱ이 바로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음을 또는 모음을 바꿔서 뜻을 다르게 했던 방식.

즉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의미 변별성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ㄱ이고.

ㄴ은 바로 뭐니까?

길게 발음하거나 짧게 발음했을 때 뜻이 달라진다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

바로 비분절 음운이죠.

그래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것?

음운, 즉 의미를 구별해줄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우리가 애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여기 넣었어요.

왜냐하면 음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낱글자.

즉 소리가 나는 낱글자들을 우리는 각각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음절이라고 하죠.

애 같은 경우 2음절로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 때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 쪽 나와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1번,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가능, 불가능?

그런데 우리 중세 국어랑 연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 문제가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그럴 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쌀의 옛 단어.

쌀의 옛 단어였던 이것처럼 된다면

이런 거는 어두, 초성에 자음이 2개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대 국어에 와서는 초성의 자음을 2개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없죠.

선생님, 이거 ㅅ.

그러면 이거 ㅅ 2개 쓴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처리하지 않죠.

현대 국어에서는 이 ㅅ은 하나의 엄격한 된소리 자음으로 보는 거지

ㅅ 2개 결합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 중성이 올 수 있는 음운은 무조건 모음이죠.

그래서 어떤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은

바로 모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표를 보세요.

보기에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ㄴ,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ㄷ, 중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중성은 반드시 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초성이나 중성 없어도 중성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음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핵심은 중성이다, 이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5번 답지.

2번이나 5번이나 결국은 중성에 오는 거는 모음이고

모음이 결국 중심이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운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아홉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음운 변동을 나눠서 보도록 할 겁니다.

풀기 전에 공부하고 풀어보려고요.

내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데 문제로 한번 접근해볼까?

이렇게 가지 맙시다.

그러면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그렇게 되는 건데.

선생님은 그냥 기분 좋게 잘 공부해놓고 다 맞는 즐거움.

그래도 실수를 한두 개 할 수 있어.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실수를 내가 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음운 변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